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0년 3월 8일(주일) 제1285호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안내

온누리교회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성도들의 안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3월 14일(토)까지 국내 전 캠퍼스의 예배 및 모임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며
주중에 교회의 모든 장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위 기간 성도들은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주일예배(1~7부)와 새벽예배(1부 오전 5:20, 2부 6:30)에 참여합니다.
-온누리교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user/Onnuriservice>
-CGNTV
<https://www.cgntv.net>
2. 순예배는 3월 첫째 주부터 온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순장들은 교회에서 준비한 순도우미를 사용하여 카카오톡 등 가능한 SNS를 통해 순모임을 인도합니다.
3. 개인영성을 위해 CGNTV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와 '생명의 삶'(큐티)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교회 홈페이지와 여성사역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나라를 위한 매일 기도] '마리아행전123'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 차세대 온라인 주일예배

- 예수님의꿈아이 오전 9:00, 11:30, 오후 2:00
- 꿈이자라는땅 오전 9:00, 11:30, 오후 2:00
- 파워웨이브 오전 9:00, 11:30
- 차세대 전용채널: <https://www.youtube.com/c/온누리교회차세대>
- 6. 대학청년 온라인 예배
-주일예배: 토요일 오후 5:00, 주일 오전11:30, 주일 오후 2:00, 주일 오후 4:00
-홀리스타: 오전 6:30(월~금)
-대학청년 전용채널
<https://www.youtube.com/c/온누리교회대학청년>
- 7. 외국어 온라인 주일예배
-영어예배 오전 11:00, 오후 4:00
-일본어예배, 중국어예배, 스페인어예배, 프랑스어예배 오후 2:00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매우 지혜롭고 합당하게 대처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와 일부 교회에서의 단체 감염의 사례를 통해 다중시설로 분류되는 교회의 예배와 활동들은 아쩔 수 없이 사회적 불안 요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한 향후 몇 주간은 더 큰 전염병 확산을 막아야 하는 결정적 기간이 될 것입니다. 위기의 시기에 교회는 구성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하는 사명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 온누리교회는 2월 26일(수)부터 3월 14일(토)까지 교회 예배당에서의 공예배와 주중모임을 갖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3월 1일(주일)과 3월 8일(주일)의 주일예배는 CGNTV와 온누리교회 YouTube 채널을 통해 영상예배로 드리게 되고, 새벽

기도회(1부 5:20, 2부 6:30)는 매일 YouTube 생방송으로 제공됩니다(그 밖의 다양한 예배 안내는 위 상세한 지침을 참고).

한국 교회사에서 주일성수는 매우 중요한 신앙적 기준이었고, 이를 지키기 위해 엄청난 고난을 감수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주일성수를 위해 월남하신 분들도 있고, 사회적인 불이익을 기쁘게 감당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이 어떤 분들에게는 신앙적인 퇴보나 세상적인 타협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주일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구의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 평생 처음으로 공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릴 수 없음을 슬퍼하며 눈물 흘리셨다는 소식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공감하는 슬픔입니다. 그러나 미디어가 보편화된 시대가 되어 영상으로도 동시에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주일성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일시적으로 예배와 모

임을 중단함으로써 전염병 확산이 보다 더 빨리 종식될 수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이 위기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 드려야 하며, 또한 개인과 가정의 경건생활을 다시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CGNTV에서 매일 제공하는 <생명의 삶>과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온누리교회 여성사역에서 매일 제공하는 <나라를 위한 긴급 특별기도>등의 동영상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순장님들은 성도들에 대한 목회적 돌봄의 책임을 분담하셔서 단체대화방이나 영상대화 등을 통해 함께 기도하며 다시 모일 수 있을 때까지 경건생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순원들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온누리교회 모든 목회자들은 장례 등 긴급한 목회적 돌봄의 필요는 언제든지 수행할 것이며, 전화심방 등을 통해 목양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국일수록 비난과 정죄의 언어를 삼가고 중보와 격려와 기도로 모든 국민들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또한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드림

나라와 교회를 위한 9시 기도 이 땅을 고치소서 오후 9시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온 성도가 함께 담임목사님과 드리는 기도회 동참해 주십시오. 매일 저녁 9시, 각자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s://www.youtube.com/user/Onnuriservice>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예레미야애가 5장 19~22절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백성들이 회개하며 돌이킬 때 주시는 희망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교회가 수치 가운데 있음을 경고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일어난 것을 기억하소서. 보소서. 우리의 수치를 보소서”(애 5:1).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수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무지와 오해로 인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세상의 무지와 오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땅에 버려져 밟힐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분명 우리에게 있는 수치의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으니 우리에게 화가 있도다! 이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애 5:16).

그 죄는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조상들에게서 왔지만 처리하지 않고 동일하게 여전히 반복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수치를 경험할 수 있다고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그 수치를 벗을 수 있는지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 하셨습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제사받기 위한 성전으로 삼았다. 내가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거나 매뚜기 떼에 명령해 이 땅의 생산물을 값아 먹게 하거나 내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을 보낼 때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아져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 땅을 고칠 것이다’(대하 7:12-14).

이 땅이 고쳐지는 회복의 길은 주의 백성들에게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애통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로

5장에서는 예레미야가 비통한 마음으로 이 수치스러운 예루살렘의 모습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모습을 열거하며 고백합니다. 이방인들이 땅을 점령하여 고아와 과부를 만들었습니다. 생필품을 얻기 위해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마음에는 기쁨이 사라졌고, 활기가 없고, 눈이 희미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다”는 16절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회복의 조짐이 보이지 않았습니 다. 주전 539년 바벨론이 멸망하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까지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대한민국에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레미야의 애통함입니다. 나라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슬퍼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미움과 분노, 정죄와 판단보다 회개와 애통이 앞서야 합니다. 전염병만이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위기가 매우 심각합니다. 2019년 합계출산율이 0.92입니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0.92명의 자녀를 가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정부가 200조 가량 예산을 부었지만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서울대 조영태 교수의 글에 의하면 내년부터 출생아 수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출산율은 낮아도 여러 가지 통계를 볼 때 태어날 아이들의 숫자가 30만 명이 될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가능성의 문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닫혀 버리지 않나 염려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구현상은 사회 위기와 연결되어 있고,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일상을 위협할만한 위기가 발생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이주입니다. 이주가 여의치 않으면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역사 속에서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을 강타했을 때 사람들의 처음 반응은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주가 오히려 전염병을 확산시키자 출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인구가 1/3이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주나 저출산으로 더욱 인구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정의 원리를 회복하고, 젊은이들이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고, 가정마다 회복이 일어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저출산과 연결된 또 다른 위기는 이주민 급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주민들은 250만 명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저출산이 계속될수록 이주민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가 대한민국 미래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누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도록 하는 길 밖에

없는 것입니다.

북한의 실상은 현재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고통 속에서 자유를 찾아 탈북한 동포들의 이야기는 살아있는 오늘의 역사요, 우리의 수치입니다. 민족의 수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레미야와 같이 이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애통해 하고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애통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여전히 통치하시고, 백성을 오랫동안 버려두시지 않으신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통치하시며 주의 보좌는 자손 대대로 지속됩니다”(19절).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 같은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원문에서는 19절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 하였던 시온산은 황폐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은 시온산의 멸망을 자신들의 신이 이겼다고 자랑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세속의 권력도 하나님의 통치를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모든 권력을 사용하셔서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요동하게 만드는 어떤 일도 세상을 만드신 분을 요동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어떤 사건도 세상을 만드신 그분을 어지럽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면류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보이는 다윗왕국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교회가 사라진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떠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북한에서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이 땅을 더 오랫동안 버려두시지 않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고 왜 우리를 이토록 오랫동안 버려두십니까?”(29절).

이 고백은 부정적인 책망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대답을 전제로 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오랫동안 버려두시는 가혹한 분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5장의 기도를 할 때 상황적으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회복의 조짐이 보이지 않았습니 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회복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

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내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이행할 것이다’”(렘 29:10).

이 나라 옛적의 참된 신앙을 회복

셋째, 하나님께서 이 나라 옛적의 참된 신앙을 회복시키실 줄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의 날들을 옛날처럼 새롭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고 주의 진노가 아주 심하지 않다면 그렇게 하소서”(21~22절).

예레미야는 옛적 일을 생각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상기하게 하는 일을 생각하면서 힘과 용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옛 예루살렘의 영광과 옛 다윗왕국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를 기억할 때 ‘옛날처럼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생각할수록 힘과 용기를 가져다주는 옛적 일이 있습니다. 평양대부흥운동과 3.1운동 등은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복된 일입니다. 오늘은 3.1운동 10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3.1운동은 교회 지도자들이 사회를 변화시킨 신앙운동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 수가 전체 인구의 1.5% 내외였습니다. 그런데 3.1운동에 앞장서 체포 수감된 기독교인의 숫자는 전체 수감자 20% 내외를 차지했습니다. 남강 이승훈 장로님은 용기 있는 믿음으로 모든 지도자들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옛적 신앙의 놀라운 회복이 오늘 이 땅에 일어나야 합니다. 길선주 목사님 같은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이 땅에 다시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고 주의 진노가 아주 심하지 않다면 그렇게 하소서”(22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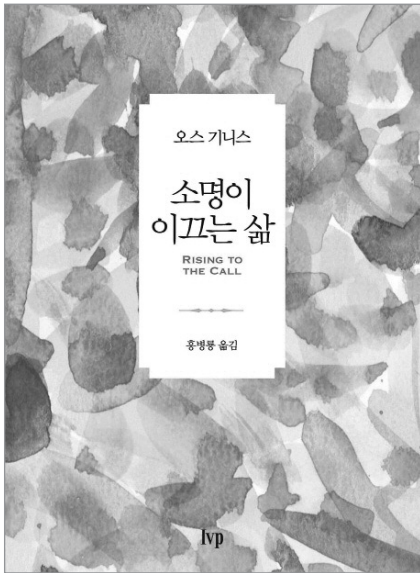
예레미야애가는 고통으로 시작했지만 희망으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은 고통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우리나라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의 샘을 반드시 다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위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났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국가의 위기 가운데 흠어져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하심을 믿고 다시 회복을 간구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책 읽어주는 목사

목적의식이 희미한 시대



소명이 이끄는 삶
오스 기니스 저 | IVP | 8,000원

“가진 것은 많으나 목적의식은 희미한 시대.”
오스 기니스의 책 <소명이 이끄는 삶> 서두를 장식하는 말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명확하게 꼬집는 표현이다. 삶의 풍족함은 안정감을 유지하거나 추구하도록 부추긴다. 정작 돌아봐야 할 삶의 이유와 나의 존재 목

적을 잊고 살아가게 만든다. 더 나아가 풍족함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기도 한다. ‘풍족함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 나쁜가?’ 라고 질문할 수 있다. 하지만 풍족함만으로는 다음 세대에 삶의 참된 가치와 복음의 의미를 전달할 수 없다. 부모세대의 풍족한 삶을 향한 치열한 노력 속에서 다음 세대는 자연스럽게 풍족함을 핵심 가치로 여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스 기니스는 이러한 시대에서 소명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꼬집어 말한다.

소명이란 무엇인가? 소명은 투자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소유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투자하는 것이다. 세계역사의 위대한 도약들은 이러한 소명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해 갈릴리에서 기독교 운동이 부흥한다. 제자들은 도망가고 풍요로운 삶을 향해 떠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제시한 복음의 길에 투자했다. 그로 인해 죽음의 상징이었던 무덤 카타콤에서도 생명과 같은 신앙이 보존되었다. 이는 로마를 통한 유럽 복음화에 큰 발판이 된다. 일반인들이 읽을 수 없었던 라틴어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되었을 때 말씀을 통째로 외우고 전파했던 이들(몰라드)이 있어서 종교개혁의 발판이 마련됐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투자했다. 목

숨을 걸고 보존한 성경책은 로마 교황청의 부패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종교개혁의 근간이 된다. 그리고 종교개혁은 근대 세계의 발흥의 단초가 된다.

소명이 사라졌던 곳은 어떠했나?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었던 영국에서는 소명의식이 사라지면서 노예제도를 확산시킨다. 풍족함에 잠식되어진 기독교 신앙의 이야기는 영국의 양심이라 불리는 월버퍼스 의원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의 작곡가 존 뉴튼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려져 있다. 풍요로운 삶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영혼을 잠식시키고, 그것에서 벗어나려는 소명에 대한 투자는 이 사회의 목적의식과 본질을 일깨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스 기니스는 소명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하나는 소명의 뜻 그대로 ‘부름을 받은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뜻한다.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주님이 불렀다는 것이다. 내 이름 아시는 분이 나를 예수의 사람으로 불렀다.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 명확해진다. 그때 또 하나의 소명을 들을 수 있다. 바로 ‘개인에게 주신 역할’이다. 첫 번째 소명이 나를 누군가(그리스도인)로 부른 것이라면, 두 번째 소명은 나를 무엇(부모, 교사 등)으로, 어

디(도시, 지역 등)로 부른 것인가 돌아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소명에 대한 구분이 분명해지면 우리는 소명에 투자하게 된다. 내 자신에 대한 소명을 이해하고, 목적의식을 회복하게 된다. 직장과 교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들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일차적인 소명이 명확해야 한다. 그분에 의한, 그분을 향한, 그분을 위한 부르심을 듣는 사람으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내 삶에 비추어 보는 소명의 초대에 응해야 한다. 그 이후 이차적인 소명에 접근하게 된다. 주관적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일을 찾기 시작한다.

오스 기니스의 <소명이 이끄는 삶>은 풍족한 시대에서 본질을 잃지 않고 목적의식을 찾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책이다. 이 책을 통해서 소명을 이해하고 내게 주신 소명을 발견하기를 소망한다.



김성욱 목사
(강동 온누리교회)

온누리신문 · CGNTV 공동기획

스스로 신앙(마음밭) 돌아보기

자녀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신앙 점검까지 할 수 있다면 그 유익은 배가 된다.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방법을 소개한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한다. 좋은 것만 닮았으면 좋겠는데 안 닮았으면 싫은 부분도 그대로 닮는다. 따라서 부모는 늘 자신의 행동과 심성을 돌아봐야 한다. 사실 본인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예배, 봉사, 기도, QT 등 항목을 나눠서 점수를 주자니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고, 그것들이 신앙의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을까? 신앙은 삶에서의 성품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스스로 두 가지 마음밭(성품과 정서)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가능해볼 수 있을 것이다.

‘성품’은 타인을 대하는 자세에서 나타난다. 나와 가까운 사람부터 거리가 먼 타인지 세분화 하는 게 좋다. 배우자, 자녀, 부모, 친구, 나보다 잘 사는 이웃과 나보다 어려운 이웃 등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종이

에 적어보자. 혹시 부끄러운 모습이 발견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정서’를 스스로 살펴보는 것은 어려움이 더 많다. 전문가나 관련 서적의 도움이 필요하다. 뉴 라이프 펠로십 교회(New Life Fellowship Church)의 설립자 피터 스키치로 목사는 정서를 점검하는 10가지 질문을 제시했다. 1. 내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한다. 2. 분노, 슬픔, 두려움의 감정은 즉시 억누른다. 3. 음악, 미술, 기쁨 같은 욕구는 웬지 사치라고 생각한다. 4. 발목을 잡는 과거를 덮어 두

려고만 한다. 5.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칼같이 나눈다. 6.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 사역에만 바쁘다. 7. 사람과의 갈등은 무조건 피한다. 8. 상처, 약점, 실패는 철저히 은폐한다. 9. 내 한계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10. 다른 사람을 쉽게 평가하고 판단한다. 이 10가지 질문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기를 바란다. 목회자나 기독교상담을 공부한 상담가들에게 도움을 청하면 더욱 좋다.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가이드

제목 : 축복을 받는 삶

본문 : 열왕기상 3장 11~14절

찬양 : 사절에 봄비람 불러 있고

메시지

솔로몬은 왕이 된 후 하나님께 일전번제를 드립니다. 부족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 나눔을 가지려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내게 구하여라.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이에 솔로몬은 옳고 그름을 가려내며, 백성들을 다스리고자 지혜를 구합니다. 그는 자신의 부와 영광을 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하나님께

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소원을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하며 살고 있나요? 혹 어리석은 간구가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솔로몬은 자신이 훌륭하여 왕의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 다. 그러기에 부족한 자신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겸손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이러한 겸손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시며 복을 허락하셨고 이전에도 또한 이후에도 없는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겸손히 내려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에 간구와 소원이 가정에 풍성히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 아버지 다윗처럼 말씀과 명령을 지키면 장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에 그의 아들 세대에 나라가 나누어지고 장수하지 못했습니다. 일전번제를 드리며 믿음으로 출발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부끄러운 마지막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나는 자녀에게 어떤 부모로 기억되며 지금 나의 모습은 자녀들

에게 신앙적으로 좋은 롤 모델이 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솔로몬이 하나님께 처음 드렸던 겸손한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가정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 문영재 목사

찬양 : 항상 진실케

*오늘(3월 8일) 저녁 8시 30분 CGNTV에서 방송되는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를 시청하시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YouTube 채널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를 통해 직접 가정예배 Live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